

벼·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총력

임실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공동방제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벼 또는 논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는 총사업비 13억7,800만원이 투입되며, 1·2차를 합산해 총 7,400ha 규모로 추진된다.

방제 방식별로는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성 높은 항공방제가 4,920h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방제 2,400ha, 광역방제 80ha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도 총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총 600ha 규모로 추진된다.

공동방제에 사용될 약제 선정과 세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고품질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 방제 시기 등은 향후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특히, 군은 농약안전사용기준(PLS)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임실군 주요 품목에 등시 등록된 약제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약제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 생육 후기 주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실시된다.

방제 방식은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활용하는 '항공·광역방제'와 조생종 재배지 또는 개인 방제를 선호하는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일반방제'로 구분된다.

논콩 병해충 공동방제 역시 노린재류와 나방류,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하며, 총 2회 방제로 진행된다.

다만,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협의체 구성·안전요원 확대 배치

순창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수상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대령의 여름철 수상안전 강화 지시에 발맞춰 반복되는 익사사고를 예방하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6월부터 9월까지 상시 가동되며,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군 내부 부서와 소방·경찰·교육지원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18개 기관 및 부서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예방·점검·구급·구급 등 수상안전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군은 관리하는 수상 안전관리 대상은 물놀이 지역과 저수지, 야영장, 유원시설, 강천산 군립공원, 수상레저시설 등을 포함해 총 218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성수기 이전부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



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동계면 장군목과 유등면 섬진강체육공원 등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군·소방·경찰 합동 순찰 노선을 운영하고 구명환·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점검과 확충도 추진한다.

이들러 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을 기존 8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도 기존 16명에서 34명으로 늘려 배치할 예정이다. 개소당 2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돼 물놀이 관리 지역 순찰과 인명구조, 응급처치, 안전시설 관리, 구명조끼 무료 대여 등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상담·교육 나서

순창군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운영하며 수도권 지역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2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지빌딩(방배동) 내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민 25명이 참석하여 순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교육은 순창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홍보와 정착 상담,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1일차에는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및 농어촌기초소득 사업 등 순창군 지원정책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상담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교육생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2일차에는 실제 귀농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나의 귀농 이야기' 강의가 진행돼 큰 관심을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위한 홍보활동 전개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명예 도민증으로, 소지자는 도내 주요 관광·문화시설 이용 할인과 전북투어패스 이용권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북사랑도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임실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군은 군부대와 경찰·소방기관, 금융기관 등 주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설명하고, 홍보물 비치 및 가입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3기 운영

남원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력증진교실 3기-소도구체력연구소'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18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8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내 남원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

전 10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다. 남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한 타바타 운동을 통해 심폐지구력과 근력 향상 등 기초체력에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체력인증센터(063-633-733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치매안심센터,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치매 집중검진군인 만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검진은 올해 만 75세가 되는 진입자(1951년생)를 비롯해 만 75세 이상 고령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 대상자들이 검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유선 안내와 홍보물 우편 발송을 통해 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판별하는 일차적인 검사다. 평소 지리적·신체적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진료소 방문이 어려웠던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 후 가정에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다. 특히 부재중인 대상자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 병원과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치매로 최종 진단될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워킹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남원시 치매안심센터(063-620-7725) 또는 가까운 보건진료소·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주 보건의료 연수단, 남원 방문

공공보건의료체계 사례 벤치마킹

남원시보건의료연수단은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주 보건의료 연수단이 선진 공공보건의료체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남원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라따나끼리주의 공공병원 업무를 중점하고 의료진 및 경영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KOICA 발주 사업이다.



이날 방문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제협력추진단, 캄보디아 보건국 및 라따나끼리주 보건국 관계자, 라따나끼리주립병원장, 군립병원장 등 현지 보건 의료 핵심 인사를 포함한 총 21명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남원시보건의료 주요 시설을

견학했으며, 한용재 보건소장으로부터 남원시의 보건 현황과 관계기관 간 협력 연계사업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특히 연수단은 예방접종 지원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등 보건소와 남원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보건의료의 우수한 보건정책과 체계적인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원시 공공보건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공분야 드론 운용 능력 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가 드론 기술의 행정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공공분야의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드론 실무 교육에 나섰다.

시는 5월 28일(1기)을 시작으로 6월 11일(2기), 6월 18일(3기) 총 3기에 걸쳐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 실내·외 교육장에서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드론 실무 운용 기반 구축을 위한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도입의 첫걸음인 이번 교육은, 드론 활용도가 높은 농업·산림, 공간정보, 안전분야 등 14개 부서 및 업무 연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공공분야 드론 활용 사례 및 기초 원리 교육에 이어



FPV 드론 및 산업용 드론 조종 실습을 통해 행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